

# 내 고향 부천

# 부천사랑 부천사랑



## 우리고장의 상징물



### 심벌마크

우리 고장의 심벌마크는 시의 꽃인 복사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 있는 다섯 개의 산과 다섯 개의 하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체모양은 안정적이고 발전하는 도시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 시의 색: 청색(하늘색)

우리 고장의 색은 청색입니다. 젊음, 약동, 희망을 상징하는 청색은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색인 적색은 발랄하고 화려한 색으로 청색과 좋은 조화를 이루어 적극적이고 참신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 시의 꽃(복숭아꽃)

우리 고장의 꽃은 복숭아꽃입니다. 옛날 우리 고장은 복숭아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복숭아꽃은 4~5월에 피며 7~8월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연하고 수분이 많으며 향기와 단맛이 뛰어 납니다.

지금은 복숭아 산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복숭아꽃이 피는 4~5월에 복사골예술제를 열어 시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잊혀져 가는 옛 정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 시의 나무(은행나무)

우리 고장의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소사구 소사본2동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은행나무가 있으며, 오정구 여월동에는 500여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고 4~5월에 꽃이 피며 잎은 부채 모양으로 퍼져 있고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며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이 우리 고장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은행나무는 가로수나 정원수, 공원수, 분재로도 이용됩니다.



### 시의 새(보라매)

우리 고장의 새는 보라매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되는 새끼를 잡아 길 들여 곧 사냥에 쓰는 매를 '보라매' 라고 합니다. 매는 약진, 비상, 날렵, 세련, 치밀, 완벽, 목표 완수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매의 이 같은 이미지와 우리 고장의 도시 특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매를 시의 새로 정했으며 춘의산의 큰 봉우리는 매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 마스코트(부천 보라매)

우리 고장의 마스코트는 '부천보라매' 입니다. 매를 친근하고 개성 있게 표현 하였습니다. 부천보라매라고 부르는 여러 모양의 마스코트는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관계를 보다 친숙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내 고향을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부천입니다.

옛날에는 복사꽃 향기 가득한 도읍이었지만 1973년 시로 승격되면서 급속히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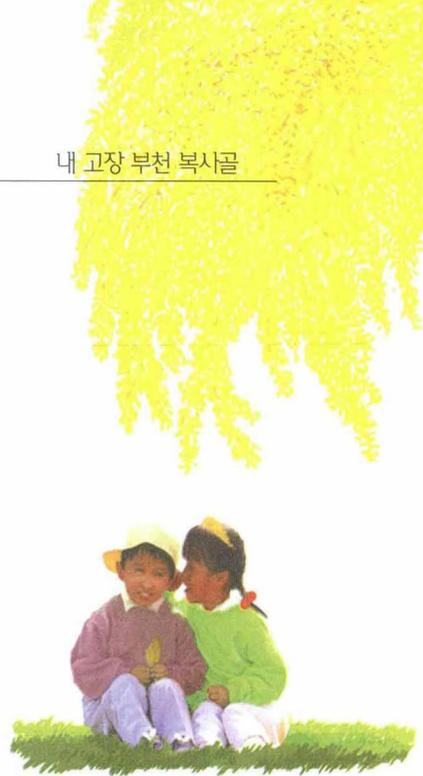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우리 친구들은 부천이 언제부터 생겨났고 왜 부천이라고 부르는지, 복사골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선생님께 여쭙어 보고 부모님께서 알려 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은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평소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고향에서는 먼 옛날 선사시대 유적지도 발굴되고 향토유적과 중요 무형문화재, 역사 속의 부천 인물, 그 밖에 문화유산도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거나 살고있는 우리 고향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디딤돌로 이 조그만 책자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고향에 사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힘과 뜻을 모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1999년 2월 부천시장





# 내고장 부천 복사골



**[참고문헌]**

- 부천시사(1988) - 부천시 발행
- 부천문화의 재발견(1996) - 부천문화원 발행
- 재미있는 부천이야기(1996),
- 부천사연구(1992) - 부천역사연구소 발행
-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차 · 1996년, 2차 · 1998년)  
- 부천시 · 한양대학교박물관 / 문화인류학과
- 복사골부천(1990년~1998년)
- 기타 통계자료

**[감 수] 가나다순**

- 강정규 - 작가
- 김광목 - 시인
- 민충환 - 부천대 교수
- 백수현 - 부천문화원 국장
- 부천교육청 초등교육과
- 최현수 - 부천역사연구소 소장

발행일 : 1999년 2월

발행인 : 부천시장 원혜영

발행 및 편집 : 부천시청 공보실  
(420-736)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전 화 : 320-2092, 2098



## 차 례

부천의 변천	-----	5
우리 고장의 자연과 생활	-----	6
위치와 면적, 산 · 하천, 인구, 특성		
시청 · 시의회에서 하는 일	-----	8
우리 고장의 역사	-----	10
시 · 동 · 마을의 지명유래	-----	12
산 · 하천 · 고개의 지명유래	-----	20
문화재 및 향토유적	-----	23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향토유적, 기타 유물 · 유적		
역사속의 우리 고장 인물	-----	28
우리 고장과 인연을 맺은 인물	-----	31
우리 고장의 민속과 설화	-----	32
민속전통, 역사적 인물 이야기, 설화, 민요		
우리 고장의 사랑거리	-----	38
옛날 우리 고장은	-----	40
우리 고장의 일반현황	-----	42
살기좋은 복사골 부천	-----	46
상동의 땅 개발, 종합터미널, 도로건설, 복지시설,		
맑은 물, 맑은 숲	-----	47
상 · 하수도 건설, 쓰레기 줄이기, 쌈지공원 조성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	48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만화산업, 부천 국제대학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조성		
2000년대 부천의 미래상	-----	51
시민의 노래, 시민현장	-----	52



# BUCHON

1972년



1977년



1987년



1997년



# 우리 고장의 자연과 생활

## 위치와 면적



우리 고장은 서울의 중심에서 서쪽으로 20km, 인천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장 북쪽은 서울시와, 동쪽은 서울시 및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은 인천시, 남쪽은 시흥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이 북쪽에 가깝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땅 면적은 53.46㎢입니다.



**산·하천**

시청 건물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성주산, 할미산이 있으며 동쪽에는 원미산, 춘의산 등이 있습니다.

하천은 심곡천, 소사천, 구지천, 비릿내천, 새경굴천 등이 있습니다. 이 하천에서 흐르는 물은 우리 고장에서 굴포천을 통해 북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고장의 하천들은 길이가 짧으며 1980년대 이후에 대부분 복개된 길 밑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인 구**

○ 연도별 인구 (단위 : 명)

연 별	세 대	인구 합계	인 구	
			남	여
1966	7,085	41,113	20,424	20,689
1970	11,154	56,534	28,236	27,881
1973	12,712	65,080	32,504	32,576
1975	22,479	109,236	54,131	55,105
1980	51,161	221,475	112,725	108,705
1985	117,300	456,292	230,735	225,557
1990	183,196	667,993	336,040	331,953
1995	248,908	781,369	396,079	385,290
1996	255,163	795,950	403,543	392,407
1998	253,003	780,017	394,559	385,458

우리 고장의 인구는 1973년 시로 되었을 때 6만 5천명이었던 것이 1998년 10월말에는 78만여명으로 25년 동안 무려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에 가깝고 교통이 매우 편리해 주택과 공장이 많으며 신시가지 개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특 성**

옛날 복숭아 산지로 명성이 높았던 우리 고장은 교통이 편리해 지면서 공장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해 오면서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지로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망과 고속도로, 그리고 전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김포공항과 현재 건설중인 인천 신공항 등이 우리 고장과 가깝게 자리잡고 있으며 중동 신시가지 개발로 생동하는 젊은 도시로 자리잡았습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의 화려한 명성을 통해 정상의 음악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고장은 복사골예술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독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 시청·시의회에서 하는 일



### 시청에서 하는 일



시청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시청의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고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고장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서관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업소를 단속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 공원, 체육공원 등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먹을 물을 공급하며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를 만들고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을 청소합니다.

-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열며 유적을 발굴하고 향토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합니다
-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어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고 주택이나 아파트,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복지관, 체육관, 종합운동장을 만듭니다.
- 근로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짓고 어려운 이웃이 잘 살 수 있게 합니다.
- 미국, 일본 등 외국에 있는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큰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기업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고장 공산품 전시장을 운영합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하면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시청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통계조사를 하고 정보기능이 뛰어난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웁니다.

### 구청에서 하는 일

우리 고장에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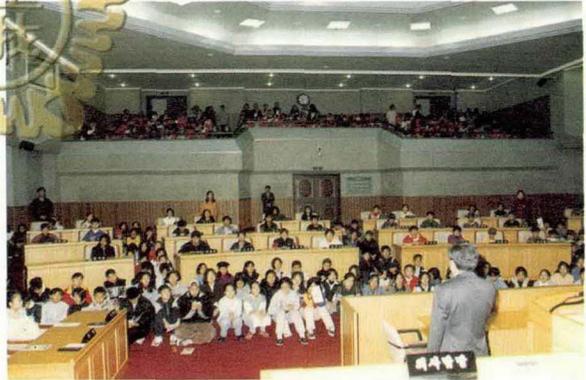
3개 구청에서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며, 지역물가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무단방치 차량 처리, 도로표지판 정비, 무료 공한지 주차장 설치 등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호비를 지급하고, 노인복지·여가시설, 소년소녀가장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린이공원 조경설비, 녹색도시공간 조성,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오수·분뇨 정확조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단속,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합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일**



▲ 시의회 개원



▲ 시의회를 견학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시의회에서는 시와 함께 우리 고장의 일을 처리하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아 발전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 등으로 우리 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 의결합니다.
- 우리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행정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합니다.
- 시민과 관계있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시의회 운영**

- 시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연간 회의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의회구성 : 35명(임기 4년)
- 의회기구 : 의장 1명, 부의장 1명,  
4개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시의회운영전반사항), 기획재정위원회(기획, 예산, 회계), 행정복지위원회(사회복지, 환경), 건설교통위원회(도로, 건축, 도시개발)
-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103석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우리 고장에는 35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여러가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출생·사망 등의 호적신고 일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학비와 생필품을 지원하여 희망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골목길이나 도로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합니다.



## 우리 고장의 역사

### 선사시대

오정구 고강본동 청룡산에는 청동기시대 사람이 살던 곳과 그 때 사용했던 물건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에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고려시대 이전

- 삼한시대

마한의 54국 중의 하나에 속하였다고 하나 삼한지역의 위치에 대하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고구려시대

고구려시대 우리 고장은 주부토군(主夫吐郡)에 속해 있었습니다.

-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 때 주부토군이 장제군(長堤郡)으로 바뀌었습니다.



### 고려시대

고려 초에 우리 고장의 이름이 수주(樹州)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 고장의 명칭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주는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가 되었다가 다시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고쳐졌다가, 길주목으로 되었고 부평부로도 되었으며, 경기우도에 속했습니다.

### 조선시대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황해·함경·평안 등 8도로 나눌 때 우리 고장은 경기도내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에 속했습니다.

### 경인철도가 완성되기 전후

우리 고장은 인천·김포·양천·시흥·안산·과천·수원·남양·강화·교동·통진 등과 함께 인천부에 속하는 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군 등 30개 군과 함께 경기도 4등군에 속했습니다.



• 소사역(현재 부천역)의 신설

부천역은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개통과 함께 소사역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인천(제물포)~노량진간의 33.2km로 7개역이 있었습니다.

부천역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의 소사역

부천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

- 1914년 부천군(富川郡)이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부천군은 15개 면이 있었지만 그후 석천면·수탄면·옥산면이 계남면으로 합해졌습니다.
- 1931년 계남면이 현재 우리 고장의 중심이 되는 소사면으로 바뀌었습니다.
- 소사면이 1941년에 소사읍으로 되었습니다. 소사읍은 표절리, 조종리, 별응절리, 괴안리, 소사리, 범박리, 상리, 중리, 심곡리, 고척리, 개봉리, 오류리, 궁리, 온수리, 천왕리, 향리 등 17개 리였습니다.

우리 고장이 부천시로

- 1963년에는 소사읍의 고척리, 개봉리, 오류리, 천왕리, 궁리, 향리, 온수리 등 7개리와 오정면의 오곡리, 오쇠리 등 2개리가 서울시로 되었습니다.
- 1973년 7월 1일 부천군이 없어지고 소사읍이 부천시로 되었습니다. 이때 부천군이었던 소래면은 시흥에, 오정면·계양면은 김포에, 영종면·북도면·용유면·덕적면·영흥면·대부면은 옹진군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정면은 1975년에 다시 우리 고장으로 되어 오늘날 부천시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고장은 1967년 7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74년 경인철도가 전철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 1983년 시흥군 소래읍의 계수리·옥길리 일부가 부천시로 되어 땅면적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 시·동·마을의 지명유래

#### 부천이란 명칭이 생긴 유래

부천이라는 명칭은 1914년 3월 1일 부천군 때 생겨났습니다. 당시 부천군은 주로 부평군과 인천부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평군의 「부」자와 인천부의 「천」자를 따서 「부천」이라 하여 부천군이 되었고 부천군의 소사읍과 오정면 지역이 합쳐져 오늘날의 부천시로 되었습니다.

#### 소사라는 지명의 유래는

소사는 소새 또는 소쇠라고도 불리워졌으며 '고운 모래' 라는 뜻의 한자말입니다.

소사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광산촌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풍수지리설에서 소사동은 물이 잘 빠지는 조리터라는 의미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복사골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우리 고장을 '복사골' 이라고 부릅니다. 복사골이란 '복사꽃(복숭아꽃)이 피는 고을'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 장수의 뜻과 평화롭고 살기좋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 소사복숭아

소사의 복숭아는 안양의 포도 등과 함께 명산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복숭아는 서울, 인천 등에 팔려 나갔으며 여름철에는 복숭아를 먹기 위해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장의 복숭아는 도시화에 밀려 거의 없어졌지만 1980년대부터 '복사골' 이란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복사꽃이 피는 4~5월에는 '복사골 예술제' 라는 시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 각동의 유래

우리 고장에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3개 구와 35개 동이 있습니다. 원미구에는 심곡1·2·3동, 원미1·2동, 소사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2·3·4동, 상동, 상1동 등 18개 동이 있습니다. 소사구에는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소사본1·2·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2동 등 10개 동이 있습니다. 오정구에는 성곡동, 원종1·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등 7개 동이 있습니다.

## ◇ 원미구

### ◇ 심곡·2·3동

부평군 때는 석천면 심곡리 지역이었고, 시승격 전에는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라 했던 부천역 북쪽 지역입니다.



▲ 부천역을 중심으로 한 심곡동 지역

- **벌막** : 허허벌판에 부천정미소와 오밀조밀한 주막거리의 모습이었던 이곳은 부천평야를 끼고 있는 마을이라 하여 벌막이라고 하였습니다.

- **진말** : 부천예식장 뒷편에서 중앙극장까지의 지역을 진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곳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땅이 무척 질었다고 해서 진말이라고 했다고도 하고, 옛날에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어서 진말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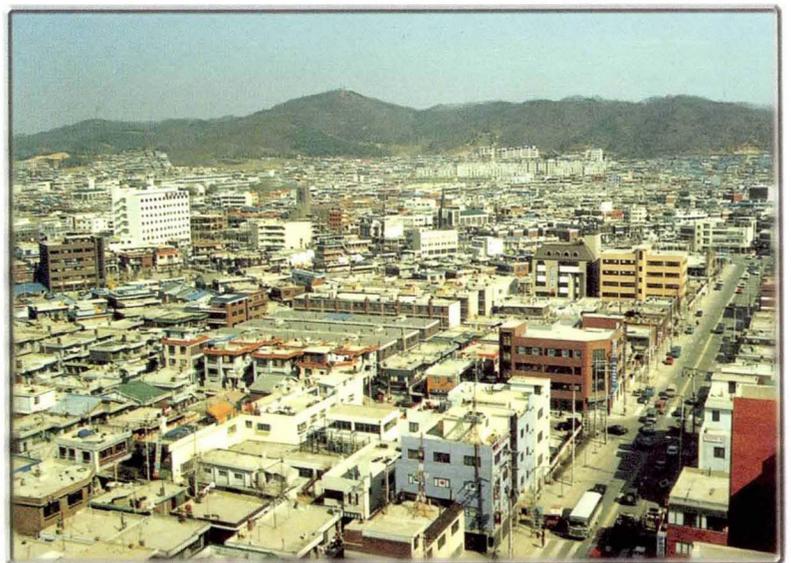
- **먹적골** : 먹적골은 현재 부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곳으로 목자리라고도 했습니다.

### ◇ 원미·2동

부평군 때는 옥산면 조종리 지역이었고 시승격 전에는 부천군 소사읍 조종리에 속했습니다.

- **조마루** : 원미동은 원미산에서 따온 것으로 이 마을의 중심을 이루었던 곳은 조마루입니다. 북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합니다.

- **절동네** : 현재 석왕사와 향림사가 있는 지역을 절이 있는 곳이라 하여 절동네라고 했습니다.



▲ 원미동 전경

◆ **춘의동**

부평군 때는 옥산면에 속했고 시승격 전에는 부천군 소사읍 표절리라 했습니다. 옛날 당아래 입구에는 풍산 홍씨가 받은 정려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려문을 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홍씨의 절개에 존경을 표현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표절리로 했다고 합니다.



▲ 춘의산을 중심으로 한 춘의동 전경

표절리는 우리 고장이 시로 되었을 때 춘의산 아래에 있는 동네이므로 춘의동이라고 했습니다.

- **당아래** : 당재 넘어 있는 아랫마을이라는 뜻으로 당아래라고 했으며 당아래는 양지말, 가운데 당아래, 너머 당아래라고 하는 3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양지말** : 당아래고개 넘어 가기 전의 마을로 양지가 든 곳이라 해서 양지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청주 한씨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 **도당동**

부평군 상오정면 지역으로 부천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도당리라고 해서 오정면에 속했습니다.

- **아기장사바위** : 절바위 앞에 있는 바위로,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린 장사가 계양산에서 날아와 오른발 한쪽만 이 바위를 밟고 소변을 본 후에 관악산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 **장고개** : 춘의동 강남시장 맞은편 한전 부천변전소에서 내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부천공구상가와 삼성전자(주) 사이에 작은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는 이 동네사람들이 우시장이나 장꾼들을 마중나와서 기다리던 고개였기 때문에 '장꾼을 기다리는 고개' 라고 합니다.
- **우산골(풀무원)** : 도당동 68번지 일대입니다. 춘의산 중턱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춘의산을 우산이라고 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 **절골** : 춘의산의 북쪽, 도당동·원종동·여월동과의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곳은 절골이라고 부릅니다.

◆ **상동·상동**

부평군 때에 석천면 중리의 위쪽이 되므로 상리라고 했으며 시승격 전에는 부천군 소사읍 상리라 했습니다. 부평과 접해있는 신상리도 이곳에 속합니다.

- **사래이** : 서촌말이나 주변 마을 부자들이 땅을 빌려줘서 일꾼들이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 **벽돌막** : 이곳에 벽돌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붙여진 명칭이며 주택들이 새롭게 들어섰다고 하여 새마을 또는 새말이라고도 부릅니다.
- **신상리** : 부평과 가까이 있는 마을이 새로운 상리인 신상리로, 상동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중동, 중1·2·3·4동



▲ 중동 신시가지 전경

부평군 때에는 석천면의 중간마을로 중리라 하였는데 시승격전 부천군 소사읍 중리라 했습니다.

- **장말** : 장말은 덕수 장씨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말은 유일하게 도당이 남아 매년 음력 10월 10일 장말도당굿을 하고 있습니다.
- **넘말** : 장말에서 언덕을 넘어 이루어진 마을 이름입니다.
- **산우물** : 현재 시민회관 남쪽 자리로 매우 찬 산 우물이 있었다는 데서 붙여진 마을 이름입니다.
- **일곱집매** : 중동 넘말과 약대동 중간의 수로변에 있던 마을로 벽돌공장도 있었습니다.

◆ 약대동

부평군 상오정면 지역으로 부천군 때는 약대리라고 해서 오정면에 속했습니다.

- **농장말** : 반전농장이 있던 곳으로 시승격전 부천군 소사읍 중리에 속했던 곳으로 행정구역상 약대동에 속합니다.

◆ 원미구(역곡1·2동) · 소사구(역곡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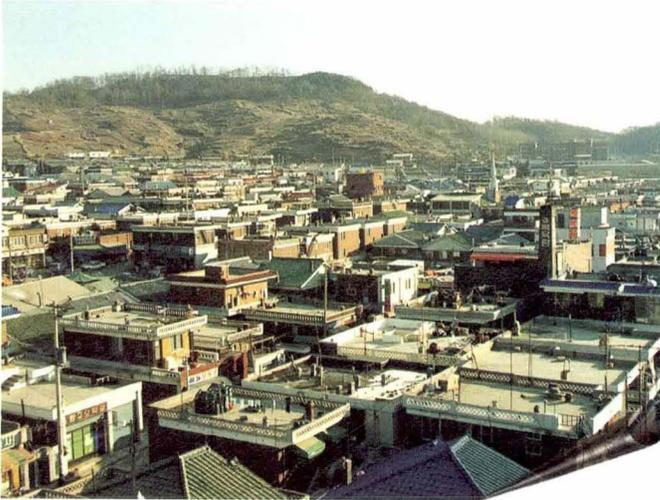
◆ 역곡1·2·3동

부평군 때는 옥산면 벌응절리 지역이었고 시승격전 부천군 소사읍 벌응절리라 했습니다. 역곡3동은 역곡동 일부, 괴안동 일부, 옥길동 일부가 합쳐진 곳입니다.

- **벌응절리** : 지금 '역곡1동' 지역. 역곡동 안동네로 벌골 또는 절골이라고 부릅니다. 절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옛날 이곳에 봉응사란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와 왜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사래리** : 지금 '역곡2동' 지역. 죽산 박씨 박철정이 처음으로 이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져 마을 이름을 '선비가 와서 사는 마을'이라는 뜻의 사래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 **새장터** :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부천역으로 넘어오는 곳에 있던 몇 가구 안되는 마을로, 새터 또는 새장터라 불렀다고 합니다.
- **시험장** : 경기도 농촌진흥원과 경기도 잠종장이 있던 곳으로 버스정류장도 시험장이라 불렀습니다.

## ◆ 원미구(소사동) · 소사구(소사본1·2·3동)

### ◆ 소사동, 소사본1·2·3동



▲소사동 전경

부평군 때는 옥산면 소사리 지역이었고 시승격 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지역으로 전철 남쪽은 소사본동이 되었고 전철 북쪽은 원미구 소사동입니다.

소사동은 원미구와 소사구에 걸쳐 있는 동으로 소사구에는 '본' 자가 붙은 소사본1동·소사본2동·소사본3동 등 3개동이 있고, 원미구에는 '본' 자가 붙지 않은 소사동이 있습니다.

- **아랫소새** : 현재 소사삼거리 지역입니다. 이곳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 지점이기도 한 곳으로 옛날에는 주막과 가게가 많이 있어서 하나의 상업 지역으로 발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 ◆ 소 사 구

### ◆ 심곡본동·심곡본동

부평군 때는 석천면 지역이었고 시승격 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중 부천역 남쪽 지역입니다.

- **깊은구지** : 깊은구지는 지금의 심곡본1동 605번지의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 길목은 그 옛날 마니골(인천 장수동)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 이 길 일대가 골이 깊고 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았습니다.

- **육각정** : 1983년 심곡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육각정이 헐렸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장 시가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자유시장** : 해방후 경인국도와 전철 사이에 생긴 곳입니다.

### ◆ 괴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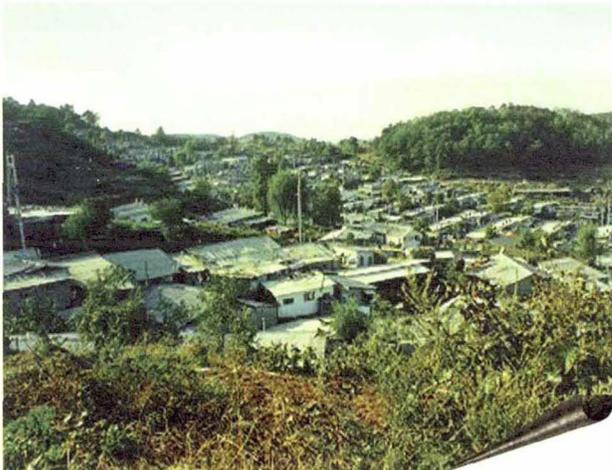
부평군 때에는 옥산면 괴안리 지역이었고 시승격 전 부천군 소사읍 괴안리라 불렀습니다.

- **고안리** : 괴안동은 고안리로 불렀다고도 하는데 충청도 맹산골 안동 권씨가 옮겨 살면서 마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고안리는 부천동여중 동편 고갯길 너머에 있었는데 웃고안리와 가운데고안리, 아랫고안리로 나눕니다.

아랫고안리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해마다 봄이면 이곳에 음식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즉, '느티나무에 안녕을 빌었기 때문'에 괴안리라 불린 것이 발음상 고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 범박동

부평군 때는 옥산면 지역이었으며 시승격전 부천군 소사읍 범박리라 했습니다. 원래 범박동과 계수동 일부와 옥길동 일부가 합해지면서 범박동으로 되었습니다.



• **범박골** : 우리 고장 사람들이 사는 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신앙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범박골로 알려진 농촌마을이었습니다.

범박골은 범씨와 죽산 박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나 호랑이와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할미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삼태기 모양을 하여 마치 호랑이 앞 발자국과 같기 때문입니다.

• **계수동** : 원래 시흥시였던 곳이 일부 우리 고장이 되었습니다. 계수동 청주 한씨의 묘역이 있는 곳을 함박산이라 하며 이곳에는 한언과 한준의 신도비가 남아 있습니다.

• **옥길동** : 옛날 두길동·식동·옥련동·함박동을 합해 옥련과 두길의 이름을 따서 옥길리라고 했습니다.

◆ 송내 1·2동

부평군 때는 석천면 지역이었고 시승격전 부천군 소사읍 구지리라 했습니다.

경인선·경인국도가 동서로 지나는 곳으로 옛날에는 복숭아 산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옛날에는 구지뽕나무가 많아 구지말·구짓말 또는 구지리라 하며 또는 개울이 한복판에 있었으므로 개울말이라 하였습니다.



▲ 송내동 전경

• **솔안말** : 경인국도와 경인전철 사이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우리 고장이 시로 된 후에도 뒷산과 이 마을 입구에 해묵은 소나무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안동네였다고 합니다. 송내란 말은 여기서 유래 되었습니다.

• **서촌말** : 지금의 '송내1동' 지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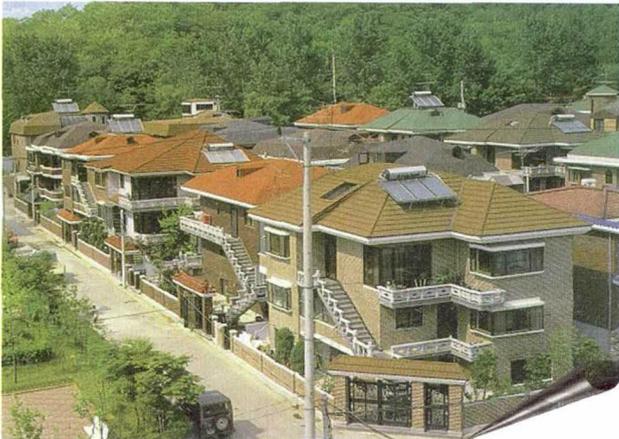
서촌말이란 지명이 붙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천 서씨가 이곳에 살면서 '서씨 마을'을 서촌으로 하여 '서촌말'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옛날에 이곳이 소나무 숲이 있어 부평으로 넘어가는 산속 작은 길은 무척 길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촌말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 **산골** : 현재 송내1동사무소가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은 경인국도변에 있어 산골이란 말답지 않게 발전하였습니다.

## ◇ 오 정 구

### ◇ 성곡동

부평군 때는 하오정면 지역이었고 부천시에 편입되기 전 오정면 작리와 여월리로 서울과 가까이 있으며 북부지역



▲ 작동 전원주택단지

### ◇ 고강본동·고강동

부평군 때는 하오정면 지역이었고 부천군 때는 오정면 지역으로 부천시에 편입되기 전 오정면 고강리였습니다. 고강동이란 이름은 '옛날에 있던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고리울에서 '고', 강장골에서 '강'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 고강동 전경

은 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작동과 여월동을 합쳐 성곡동이라고 부릅니다.

• **까치울** : 까치울을 한자로 작동이라고 합니다. 작고 아늑한 마을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조선시대 7옹주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나 그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후궁과 옹주·부마의 무덤만 있습니다.

• **여월동** : 안동네 등의 마을 모양이 반달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앞내는 여울이 저 있으므로 여울 또는 여월이라 하였습니다.

• **점말** : 점말은 여월동 입구의 마을 이름입니다. 점말은 이 지역의 토질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점토질로 아주 좋았기에 유래된 이름입니다.

• **고리울과 강장골** : 고리울, 강장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밀양 변씨 예생이 살면서부터이며, 이곳에 있는 변종인의 신도비는 우리 고장 향토유적 제1호로 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삼변'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강 변영만, 일석 변영태, 수주 변영로의 3형제가 묻혀 있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 3형제는 모두 이름난 학자였으며 일석은 학자이면서 정치가,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냈습니다. 수주는 영문학자며 신문기자였지만 시인으로 더 유명합니다. 우리 고장에는 그의 시비가 두 개 있는데 고강동 표 앞에 있는 시비에는 '생시에 못 뵈올 님'이 쓰여 있으며 중앙공원에 있는 시비에는 '논개'가 쓰여 있습니다.

강장골은 조선시대 때 변종인의 시호인 '공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이 강장으로 소리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종·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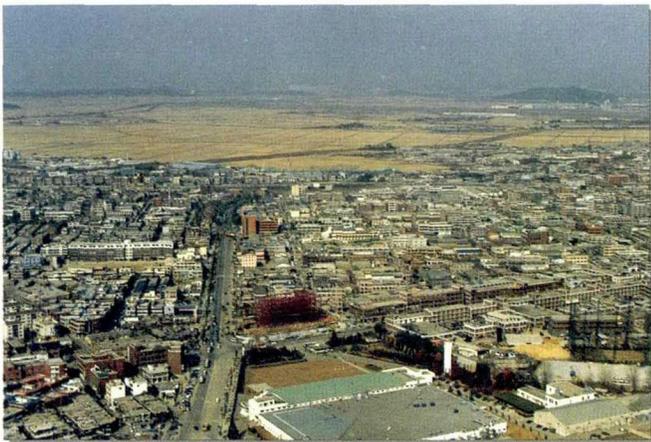
부평군 때는 하오정면 지역으로 먼마루라고 했으며 부천군 때는 오정면 지역으로 부천시에 편입되기 전 오정면 원종리에 속했습니다.

- **성터골** : 원종동을 일명 성터골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의령 남씨가 많이 살았는데 남씨 집안 가운데 벼슬했던 분이 살던 집을 흙으로 성곽같이 하여 살았다고 해서 이 고장을 성터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남병사가 쓰던 투구를 가보로 대대로 전해 왔었는데 언젠가 잃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 오정동

부평군 때는 상오정면의 오정리 지역과 주화곶면의 대장리 지역이었으며 부천군 때는 오정면 지역으로 부천시에 편입되기 전 오정면 오정리와 대장리 지역입니다.



▲ 오정동과 대장동 들녘

- **대장동** : 이 지역에는 '우뚝선 사람'이 태어난다는 데서 그 '우뚝선 사람'이란 대장을 말하지만 음이 같은 한자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마을로는 섬처럼 논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섬말, 대장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의 큰말, 한다리 등이 있습니다.

- **한다리** : 이 다리는 조선시대 세워져 대장동과 인천 계산동을 연결했지만 지금은 다리의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 신흥동

부평군 때는 상오정면 지역이었고 부천군 때는 오정면지역으로 부천시에 편입되기 전 오정면 삼정리, 내리에 속했습니다. 서쪽으로 인천과 가까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내동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면서 공업지역이 된 곳입니다.

- **내동** : 삼정동, 대장동, 오정동 일대가 옛날에는 평야지대로 이곳을 뒤로하고 아늑하고 남향진 까닭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 **삼정동** : 삼정동은 약 300여년 전 밀양 박씨가 이곳에 살면서 마을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산·하천·고개의 지명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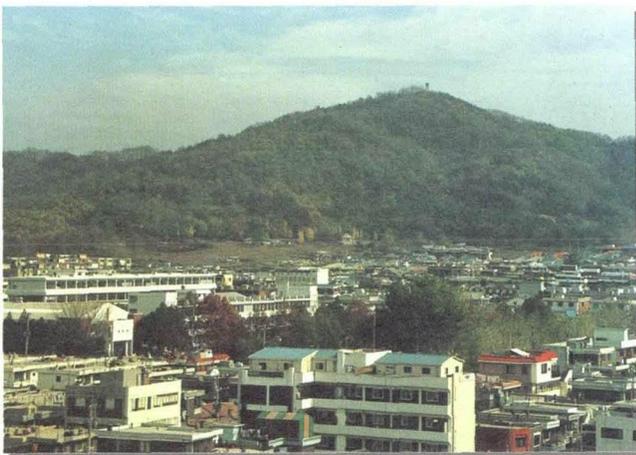
### ■ 성주산

우리 고장 남쪽에 있으며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산으로 높이는 217m입니다. 성주산이라고 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제 때 심곡도서관 자리에 참배를 강요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본인들에 의해 붙여진 산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성주산은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라 하여 일명 와우산이라고도 합니다.

### ■ 춘의산

춘의산은 원미구 춘의동·도당동과 오정구 여월동의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06m입니다. 이 지역은 언제나 따뜻한 봄과 같은 곳이어서 이렇게 불렸으며 이 산 남쪽 골짜기에는 '양지밭'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는 '한 겨울에도 따뜻한 봄과 같다'는 이 지역의 기후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 ■ 원미산

이 산은 원미2동과 역곡2동, 소사동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원미산은 둔대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미산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산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마치 눈썹과 같아서 원미산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 ■ 봉매산

소사본1동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서쪽으로는 여우고개가 있고 남쪽은 시흥과 가까이 있으며, 높이는 129m입니다. 산 이름으로 보아 매와 관련이 있는 듯하나 별 다른 전설은 없습니다.

■ 할미산

높이 153m로 이곳을 중심으로 범박동, 소사본3동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노고산, 노구산이라고도 합니다.

■ 둔덕산

역곡1동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원미산 동쪽 한 봉우리에 해당되는데 춘덕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높이는 106m입니다. 역곡동 초·중학교의 교가에 '춘덕산 정기 받고 태어난 어린이'란 노랫말이 있습니다.



■ 굴포천

인천 산곡동에서 부평~부천~김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 고향에서의 길이는 2.6km입니다.

굴포는 자연적인 하천은 아니고 조선 중종 때 삼남지방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배가 강화 손돌목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이 뱃길을 피하여 보다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판 하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 비릿내천

원미산 북쪽에서 여월동과 까치울로 들어가는 길목을 끼고 흐르는 개울의 이름입니다. 원미산쪽 위로 올라가면 큰 망골과 작은 망골이란 두 계곡이 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난다 해서 비릿내 또는 비리내라고 했습니다.

■ 심곡천

심곡본동, 심곡동, 중동을 지나 굴포천으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현재 대부분 복개되어 도로 밑으로 흐르게 했으며 길이는 2.5km입니다.

■ 소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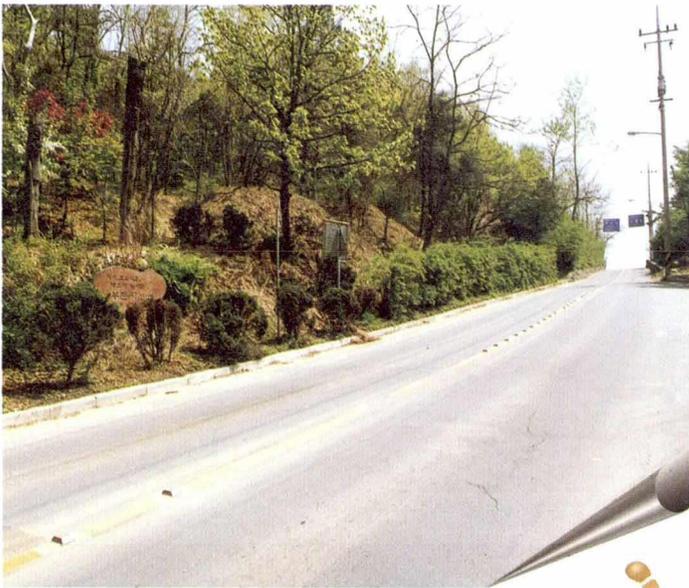
여우고개 동편에서 소사동을 지나 심곡천으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복개되어 도로 밑으로 흐르게 했으며 길이는 1.8km입니다.



## 고개의 유래

### ▶ 당아래 고개

심곡동에서 춘의동, 여월동, 원종동, 고강동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춘의동에서 여월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사를 지내는 도당이 있었습니다. 이 도당을 중심으로 춘의동 방향을 당아래 고개라 하고 북쪽인 여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당너머 고개 또는 구룡목 고개라고 했습니다.



### ◀ 하우 고개

성주산 중간 허리를 뚫은 즉 소의 허리 부분으로 알려진 고개로 지금 이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무척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고개를 막 넘으면 시흥시 대야동으로 YWCA 버들캠프장이 있습니다.

이 고갯길은 뱀내장터(현 시흥시 신천동)에서 황어장터(지금의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로 닷새 장을 오가는 소장사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는 숲이 우거지고 고갯길이 무척 가파랐다고 합니다.

### ▶ 여우고개

산의 모양이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므로 소와 같다고 해서 여우(如牛)고개라고 했다는 이야기와 여원 고개 즉 좁고 작은 고개라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무가 많고 골이 깊은 곳이어서 여우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이며 옛날에 여우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 봉산탈춤



▲ 봉산탈춤 기능보유자 김애선 선생

봉산은 황해도에 있는 지역이름입니다. 그곳은 탈춤이 유명하여 그 고장 이름을 따서 봉산탈춤이라 부릅니다.

- 무형문화재 제17호
- 기능보유자 : 김애선(원미구 원미2동)
- 지정연월일 : 1989년 12월 1일

1937년 봉산에서 태어나 부천에 살면서 봉산탈춤을 알리고 있는 기능보유자는 김애선 선생입니다.

황해도 봉산에서는 해마다 5월 단오 때면 낮부터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했습니다. 밤에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탈놀이로 밤을 지새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봉산탈춤은 피리, 젓대, 북, 장구, 해금 등의 악기가 연주되며 염불, 타령, 굿거리 곡에 맞춰 노래와 춤, 연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애선 선생은 어려서부터 탈춤을 배워 평양, 해주, 신의주 등 각지를 돌며 공연을 하다 해방 이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살면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하였습니다.

1958년에 열린 제1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1961년 제2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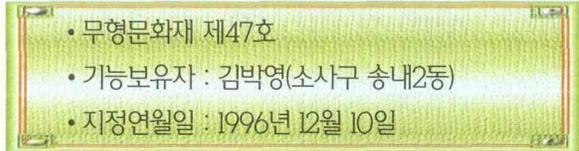
1984년 서울에서 부천 원미동으로 이사하면서부터 우리 고향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김애선 선생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공연을 하였으며 1993년 9월 대전에서 열린 국제무역박람회에서도 공연을 하였습니다. 1994년 9월 28일에는 부천시민을 위해 시민회관에서 전 과정을 공연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 궁시장

활은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일이 담긴 무와 예입니다. 궁궁은 옛날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적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로 특히 전쟁터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 궁시장 김박영 선생



궁시장이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았던 우리 고장 사람은 김장환 선생과 김박영 선생인데 김장환 선생은 돌아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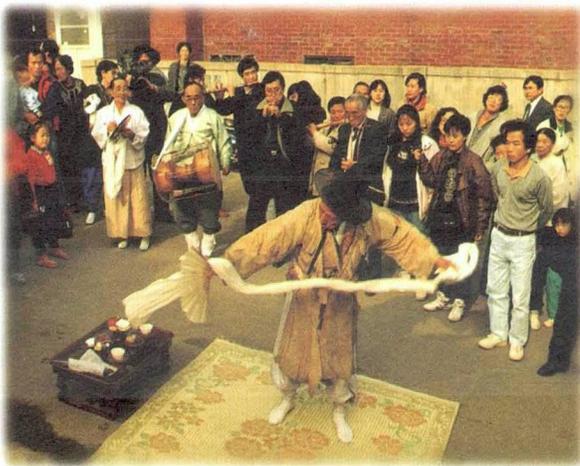
김박영 선생은 1929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본래 활을 만들었던 아버지 김홍경 선생 밑에서 15세 때부터 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을 떠나경기궁(부천활)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김장환 선생을 찾아 부천에 왔습니다.

김박영 선생은 교육과정을 거쳐 1990년 10월 보유자 후보, 그리고 1996년에는 기능보유자로 되었습니다. 김박영 선생의 부천활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김박영 선생의 부천활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국대회 때도 부천활을 가진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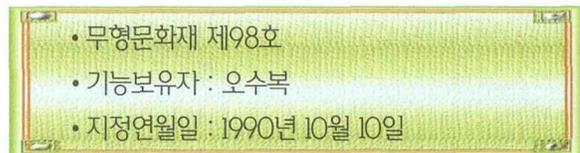
## ■ 경기도당굿(장말도당굿)

장말은 덕수 장씨가 16대를 살아온 마을로 현재는 중동의 일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장말은 넓은 평야가 있어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며 2년마다 음력 10월 중순경에 도당굿을 합니다.



▲ 장말 돌팡구지 앞에서 도당신을 부르기 위해 정성을 모으고 있는 도당할아버지 장한복 옹.



옛날의 경우 굿을 할 때는 줄광대가 와서 줄을 타고 땅재주도 넘고 장이 서는 등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장말에는 두 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로 4m, 세로 2.5m, 높이 1m 가량의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돌팡구지'라고 불리는 할아버지당(큰당, 웃당)입니다.

또 하나의 당인 할머니당(아랫당, 작은 당)은 예전에 마을 중앙에 높이 솟은 개죽나무와 당집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헐리어 할아버지 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할머니 당의 당집은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는데 그때 허문 자리에서 조그만 쇠말뚝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쇠말뚝은 묘하게도 한쪽 다리를 들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다리를 하나든 말과 관련하여 내려오는 전설로 임진왜란 때 이 마을에 용감한 장씨 장군이 있었는데 왜군이 놓은 덫에 치여 사람과 말의 다리가 부러져 잡혔다고 전합니다. 그 장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당굿을 할 때 도당을 모시는 도당할아버지는 외다리춤(또는 깨꿈춤)을 춥니다.



**향토유적**



**■ 공장공 변종인 신도비**

- 지정 번호 : 부천시 향토유적 제1호
- 소재지 : 오정구 고강동 산 63-9
- 지정연월일 : 1986년 4월 29일

변종인(1433~1500)은 조선시대 세종 때 부평 흑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조선 시대에는 부평군 하오정면이었고 현재는 고강동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으나 스스로 무예를

열심히 닦아 벼슬을 시작하였습니다.

변종인의 시호는 '공장'인데 그 이유는 '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임금 섬기기를 공손히 하여' '공'이고, '적을 이기고 뜻이 강하였으므로' '장'이라고 조선왕조실록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비록 자기의 뜻을 반대하더라도 계속 사귀었고 일에 있어서는 부지런하고 조심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업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도비문에는, '변종인은 너그럽고 후하며 생각이 남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니다. 벼슬을 지내고 업무를 하는 데는 바른 것을 지키고 아부하지 않았습니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다하였으며 평생 바른 말을 하고 행동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밝은 얼굴을 하였고 집에 있을 때는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깨끗함을 본받도록 가르쳤고 공적인 일을 위해 사사로움을 버리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변종인은 여러 사람을 정성껏 도와주고 스스로 무예를 닦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검소한 생활로 자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신도비는 5백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비에 쓰여진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향토유적제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 청평군 한언 신도비

- 지정 번호 : 부천시 향토유적 제2호
- 소재지 : 소사구 계수동 산 3-15
- 지정연월일 : 1998년 2월 5일

한언 신도비는 소사구 계수동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도비의 규모가 작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5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세상을 떠

났을 때 신도비 등 묘에 쓰일 물건도 함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 태어나 계수동에 살았던 한언(1448~1492)은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으며 겨우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어른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넓게 듣고 깊게 새기니 큰아버지인 한명회는 '내 동생이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한언은 재능이 뛰어나 반드시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한명회의 말대로 한언은 22세가 되던 해에 진사시험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높은 벼슬을 한 한언은 스승과 윗사람들이 모두 아래에 있게 되었지만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한언은 업무를 할 때 뇌물을 받지 않고 청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여 그 후 계수동 청주 한씨의 생활신조가 되었습니다.

한언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힘써 일했습니다. 역사자료를 보면 '한언은 본래 너그럽고 따뜻하고 몸가짐을 조심하며 남을 꾸짖고 화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정성껏 효도하여 효자로서 높이 알려졌습니다. 친척과 친구를 대할 때는 정성껏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언은 항상 아들과 사위들에게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를 지켰으니 너희들도 행동을 조심하라' 고 가르쳤습니다. 한언 신도비는 향토유적 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 청천군 한준 신도비

한준의 신도비도 소사구 계수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도비는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으로 인해 글자를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중종 때 태어난 한준(1542~1601)은 24세 때 벼슬을 시작하여 깨끗한 정치로 백성들이 좋아하고 오랑캐들까지 깊이 감탄하여 복종했습니다.

업무에 충실하고 절약하여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높은 학자였던 이율곡이 왔다가 감탄하여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상을 내렸습니다.

역사자료를 보면 한준의 청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준은 병으로 오랜 고생을 했지만 재물에 욕심이 없어 나라에서 보내준 것으로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 지정 번호 : 부천시 향토유적 제3호  
 • 소재지 : 소사구 계수동 산 3-10  
 • 지정연월일 : 1998년 2월 5일

한준은 본래 사람들과 사귀어 놀기를 좋아하지 않고 명성과 권력을 피하여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벼슬에 나가서는 나라가 평화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를 보여 사람들은 그를 산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준의 신도비는 향토유적 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도비는 종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내고 ‘군’이나 ‘공’ 등의 시호를 받은 사람의 평생 동안 한 일을 적은 비로 묘 앞이나 묘로 들어가는 입구 동남쪽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세웁니다.

기타 유물 · 유적



▲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 현장

■ 선사유적지

1995년 9월 오정구 고강본동에 있는 청룡산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한양대 박물관 사람들과 함께 발굴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시대 사람이 살던 집과 유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청동기시대 유적을 통해 오랜 옛날부터 우리 고장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강동의 청룡산은 우리 고장의 북동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춘의사거리에서 동쪽으로 가다 부천종합운동장 신축공사장으로 가다보면 신작동사거리가 나옵니다. 신작동사거리에서 앞으로 나가 경인고속국도의 굴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이 다리를 지나면서 바로 나타나는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청룡산이 나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계속 발굴할 것이며 이곳이 우리 고장 사람들에게는 쉼 곳이 되고 역사교육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 선사유적지 출토유물

## 역사 속의 우리 고장 인물

- 공장공 변종인 : 「향토유적」부분 참고
- 청평군 한 언 : 「향토유적」부분 참고
- 청천군 한 준 : 「향토유적」부분 참고



▲ 오정구 작동에 있는 잠조당 박처륜의 묘

### ■ 청백리 박처륜

박처륜(1445~1502)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매우 뛰어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20세에 큰 뜻을 갖고 과거시험을 보았습니다.

박처륜은 평소 집에 있으면서도 태도가 올바르고 침착하고 엄격하였으며 재산을 늘리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높은 벼슬에 올라 귀한 사람이 되었지만 지나치게 청렴하여 제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박처륜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서도 집안 가족들과 한 마디 말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과묵했으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은 따뜻하고 친하게 대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박처륜은 묵묵히 덕을 베풀었으며 사람들을 대접하고 서로 사귀는데 있어서도 정성과 믿음으로 편안하게 대해 주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사람들 모두 슬퍼했습니다.

조선시대 성종은 박처륜이 어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백성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박처륜은 그곳에서 일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했으며 백성들을 자식같이 보살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학교를 만들어 이곳에서는 많은 선비가 나왔습니다. 그 후 성종은 박처륜을 중요한 곳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사람들이 박처륜이 가지고 온 물건을 보고 그의 청렴함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청백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묘는 우리 고장 작동 잠조당 약수터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을 묘로 한 것은 박처륜의 어머니 고향이 부평인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수터는 얼마 전까지 장수천 약수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약수터 위에 청백리로 이름높은 박처륜의 묘가 있어 그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명칭을 잠조당 약수터로 바꾸었습니다.



▲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이한규의 묘

■ **하마비가 세워질 정도로 이름 있는 이한규**

이한규(1662~1729)는 성품이 올바르고 개인의 욕심이 없었으며, 일을 하는데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하여 부패를 없애는데 앞장섰습니다.

각 고을의 많은 백성들과 군인들은 이한규를 믿고 따랐으며 가는 곳마다 비석을 세워 그의 행적을 기리고, 떠나는 것을 슬퍼하였으며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아, 나라에서는 많은 상을 내리니 이로써 이한규의 사람 됨됨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덕을 베풀

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수하고 자녀가 많아 완전한 복을 갖춘 귀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 세상을 떠나자 양주에서 장사를 지냈다가 14년이 지난 뒤에 우리 고장의 오정구 여월동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한규는 평생 올바른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고, 여러 고을에서 벼슬을 하였으나 가난한 선비와 같았으니 그의 행동이 청렴하고 깨끗한 것은 타고났습니다.

옛날에는 그의 묘역 입구에 하마비가 있었습니다. 하마비는 조선시대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나갈 경우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긴 돌비석입니다.



■ 「**논개**」로 유명한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시인이자 영문학자인 수주 변영로는 1898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아호를 고려 때 우리 고장의 명칭인 수주로 정했으며 우리 고장 오정구 고강동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생시에 못 뵈올 님을’이란 시가 새겨진 시비가 있습니다.

12살 때에 중앙학교를 그만두고 중앙기독교 청년회관 영어반에서 공부한 후 영어교사가 되었으며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14세에 영시 <코스모스>를 발표한 천재시인으로 3·1운동 때에는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1922년 이후 <개벽>을 통해 수필과 번역물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하고 엄격한 성격이면 서도 밝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924년 발간된 첫 시집 <조선의 마음>에는 ‘생시에 못 뵈올 님을’, ‘논개’ 등의 시를 실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렸고 높은 시 정신과 함께 민족적 저항정신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을 펴낸 이후 이화전문 교수가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사에 있을 때에는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 손기정의 일장기 말살 사건과 관련하여 그만두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영시집 〈진달래〉를 내놓았습니다. 6·25 당시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수복 후에는 대한공론사 이사장을 거쳐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초대 위원장으로 활약했습니다.



▲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변영로 시비

‘그때가 언제 옵니까?’와 ‘논개’를 대표로 한 작품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민족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필은 민족적 저항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명정 40년〉이란 그의 문집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49년 서울시 문화상(문학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강한 민족애를 지닌 수주는 64세로 타계하여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루었습니다.

문인협회 부천지부는 1996년 12월 중동 신시가지 중앙공원에 그의 시비를 세웠습니다. 시비에는 ‘논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1997년 7월에는 오정구 고강본동 313번지에서 수주 변영로의 현대문학 표징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표징에는 「수주 변영로선생의 고향집」이라는 글씨와 함께 「이 집은 ‘논개’, ‘고향’, ‘조선의 마음’ 등 민족사랑을 감동적인 시로 노래한 수주 변영로(1897~1961)선생이 어린 시절 문학의 동지를 틀었던 고향집이다. 인간적인 멋, 뛰어난 문학적 재능이 향기롭게 빛나는 삶의 발자취가 이곳 고향집과 가까운 곳에 영원히 잠든 자리까지 이어져 아름다운 무지개로 떠오르니 이제 뜻깊은 탄생 1백주년과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선생의 업적과 작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기리고자 한국문인협회가 SBS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현대문학 표징사업의 일환으로 이 글을 새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98년 7월 2일 수주 변영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수주 변영로 기념사업회에서 고강동 선산에 있는 묘소에서 한국일보 후원으로 송시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장과 인연을 맺은 인물



■ 시인 정지용

시인 정지용의 고향은 충북 옥천입니다. 그가 우리 고장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차대전 중 일제가 미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서울 사람들을 지방으로 가라고 할 때 복사골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왔습니다.

정지용은 우리 고장에 내려와서, 우리말로 시를 짓는 일조차 죄가 되는 어두운 시대라 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에 깊이 묻어둔 채 신앙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천주교도인 그는 이곳에 교당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인천교구를 찾아다니며 물질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손수 벽돌을 쌓아 오늘의 소사성당을 있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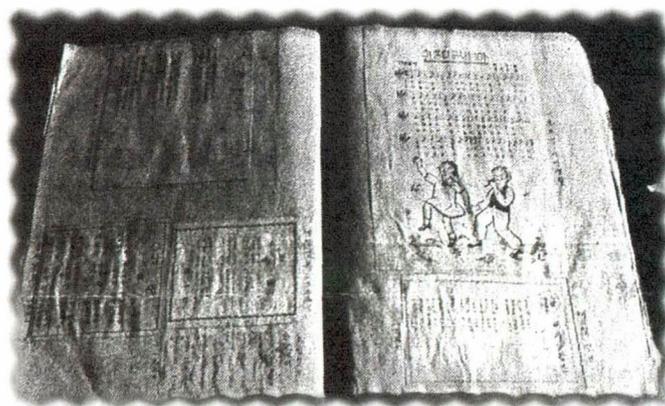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를 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 얼룩 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정지용의 대표작 "향수"의 일부분>



■ 목일신(1913~1986)

목일신은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로 시작되는 「자전거」 외에 「누가 누가 잠자나」 「자장가」 등 수백편의 동요와 민요를 작사한 문인입니다.

이화·배화여고 등에서 선생님이셨다가 1978년 정년퇴직했는데 범박동 신앙촌에서 1960년부터 1986년까지 살다가 작고하였습니다.



▲ 「자전거」 악보



## 우리 고장의 민속과 설화



### 민속전통



▲ 1996년 수원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농기고두마리를 재현하고 있다.

#### ■ 농기고두마리

옛날 우리 고장의 상동·중동·오정동·대장동을 비롯한 경기지방에서 했던 농악놀이로 이웃간의 화목과 단결을 위해 마을과 마을간의 농기 쓰러뜨리기 경쟁으로 흥을 돋구고 농사로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풀게 하였습니다.

이 농기고두마리는 6월경 논매기가 시작되면서 했는데 애벌매기와 두벌매기 때에는 농기를 논두렁에다 꽂고 농악꾼은 신나게 악기를 치며 흥을 돋구고 일꾼은 논매기에 흥겨워 일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 ■ 먼마루 도당우물 대동제

오정구 원종동에는 먼마루 도당우물 대동제라는 민속전통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옛날 밀양 손씨, 안동 김씨, 의령 남씨, 평산 신씨 등 여러 성씨들이 원종동 안동네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이 마실 물을 마련하기 위해 도당우물을 마을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봤습니다.

이 우물은 어느 사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호신으로 모셔졌으며, 궁도대회를 열기 전에 반드시 우물에 정성을 드린 후 대회장으로 떠날 정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적 바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해마다 음력 3월 1일과 7월 1일에 동네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제사를 올리고 우물 청소와 함께 한바탕 큰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대동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Witsosa Daedongsansinjje 재현모습

### ■ Witsosa Daedongsansinjje

수목숭배신앙에 뿌리는 두고 있는 Witsosa Daedongsansinjje는 그 동안 명맥만 유지해 오던 것을 뜻있는 주민들이 동네 어른들의 자문을 받아 91년 음력 시월 초사흘날 마을 뒤에 있는 도당산에서 올렸습니다. 2년마다 홀수 해에 올리고 있는 이 산신제는 마을 모든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 풍요를 기원하며 잡귀를 몰아내 각종 액을 면해 줄 것을 소원하는 매우 순수한 우리 조상들의 전통 민속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 ■ 우리고장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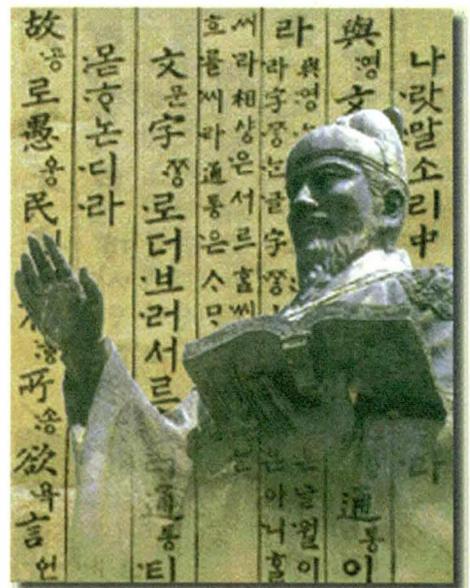
#### ■ 고려시대

충렬왕은 사냥을 매우 좋아하여 공주와 함께 옛날 우리 고장이 속해 있었던 안남으로도 사냥을 나왔습니다. 이때 사냥으로 출세를 노리는 사람이 고니를 잡아 바쳐서 왕으로부터 옷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공주는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사냥을 나온 충렬왕의 잘못을 말하며 왕을 피어내 사냥 나오게 한 사람을 크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렬왕의 사냥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충렬왕 때 우리 고장의 위치가 높아진 것도 충렬왕이 즐겨 찾던 사냥터였다는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 조선시대

세종은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였고, 등에는 부종이 생겨 고통이 심하였으면서도 독서를 좋아하여 밤낮으로 손에 책을 놓지 않아 시력이 약해져 어두운 곳을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종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온천 목욕이 필요하다고 아뢰었으나 세종은 백성들에게 폐가 될까봐 허락하지 않다가 드디어 온양온천에 가서 목욕한 후 효과를 보았습니다. 온천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세종은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종은 그 이유로 부평도호부의 등급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했습니다.



설화

설화란 옛날부터 전해오는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신화, 전설, 민담, 야담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고장에는 많은 설화가 전해옵니다.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큰 도시 가까이에 있었고 농촌으로서도 살기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설화가 만들어 지는 조건이 잘 되었습니다.



■ 귀신과 바둑을 둔 원님

옛날 부평관아에 원님이 오면 죽어갔습니다. 그것도 세 사람씩이나 되었습니다. 원님으로 오면 다음 날 아침 원님은 시체로 되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무술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나라에서는 사형을 시킬 바에야 부평의 원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죄수는 부평관아의 원님이 되어 첫 날밤 방에 촛불을 켜놓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 시경쯤 거센 바람이 불면서 촛불이 꺼졌습니다. 원래 배짱이 큰 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방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한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 차림새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원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침입자도 방긋 미소를 짓고 “이제야 내가 사람을 만났군” 하

면서 자리에 앉고 나서 “나는 소래땅 신천리에 묻혀있는 하 아무개라 하오”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원은 등이 오싹하면서 땀이 났습니다. 분명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영의정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정승의 사연은 자신의 묘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도벌꾼에 의해 베어지고 있으니 이를 막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러 오면 원님이 자신의 모습에 놀라 죽어가서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원은 잘 알았으니 날이 밝는 대로 즉시 소나무의 도벌을 막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악몽의 밤은 가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전들은 원이 죽은 줄 알고 장사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는데 원은 방문을 드르러 열며 “여봐라 이방 어디 있느냐?” 하니 장사 준비에 바쁘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방은 놀란 표정으로 원 앞에 섰습니다.

“소래면 뱀내라는 곳이 있으셨다?”

“예?”

“거기에 하정승의 묘가 있다지?”

이방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분명 원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한데 어제 온 원이 똥판지같이 소래면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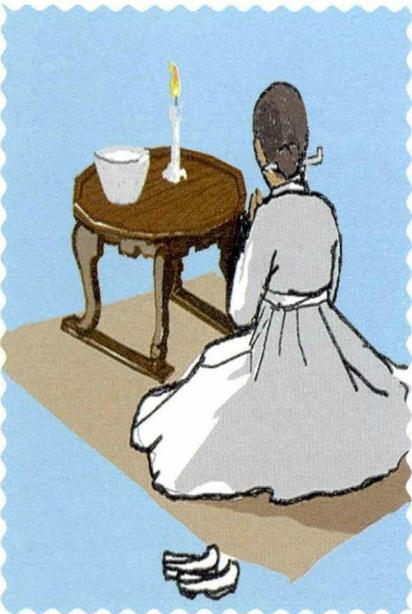
내를 물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은 즉시 아전을 앞세우고 하정승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 곳은 하정승의 말대로 소나무가 마구 베어져 있었습니다. 원은 즉시 범인을 잡아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 날밤 자정이 지나자 다시 거센 바람과 함께 촛불이 꺼지면서 하정승이 지난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정승은 원에게 고맙다고 하며 바둑까지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원은 어이가 없었으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매일 밤 원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바둑을 두어 밤을 꼬박 새우다 보니 제아무리 무술을 하는 사람이라지만 몸은 허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은 생각다 못해 아전들과 귀신 쫓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 버리려면 복숭아를 대접하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원은 그의 말대로 복숭아를 준비하고 밤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날 밤도 그 시간에 하정승의 화신이 나타나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원은 이때다 하고 복숭아를 내밀며 이것을 들고 바둑을 두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책이 없어 자네가 괴로운 모양이군. 날 그만 오라는 뜻을 잘 알았으니 이제 그만 오지, 잘 있게.” 하고 하정승의 화신은 훌훌히 떠나 버렸습니다.

지금도 시흥 신천동(옛날 부천군 소래읍 신천리)에는 하정승의 묘가 있으며 그 후손들이 사당까지 지어놓고 매년 10월이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 ■ 고사 지내는 이유

소사 고을 상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와서 스승에게 “저희 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고사를 지내지 말아야 하겠지요?” 하니 스승이 “지내지 말아야지.” 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른 제자가 와서 “저희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고사를 지내야겠지요?” 하니 이번에는 스승이 “지내야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물기를 “개가 새끼를 낳을 때는 고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고 소가 새끼를 낳을 때는 고사를 지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스승은 “고사를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내는 것이고, 지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내지 않는 것이다. 고사는 정성이다. 그 정성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 떡봉, 밥봉, 죽봉 이야기

원미구 상동에서 원미산을 바라보면 봉우리가 셋 있는데 각각 떡봉, 밥봉, 죽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봉우리에 달이 뜨는 모양을 보아서 그 해의 농사를 짐쳤는데 정월에 산봉우리를 보고 떡봉에서 달이 뜨면 풍년이 들고, 밥봉에서 달이 뜨면 그저 밥먹기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봉에서 달이 뜨면 흉년이 들어 죽밖에 못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진정한 효자

옛날 상동 고을에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낸다며 개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스승이 제자에게 따라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가 보고 와서 “개를 끌고 가서 잡은 다음 쪽 고아 한 바가지 퍼서 부엌에서 먹고, 또 한 바가지 퍼서 대문에서 먹고, 뒤뜰로 가서 한 바가지를 먹더니 대청마루에 와서 또 한 바가지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이 놀라 “나쁜 놈” 하며 그 남자를 끌고 와서 물어보니, “우리 아버님이 개고기를 좋아해서 부엌에서 한 바가지 먹고, 대문에서 먹고, 뒤뜰에서 먹고, 마루에서 먹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승이 그 말을 듣고는 “네가 진정한 효자다.”라고 하였습니다.

### ■ 칠월칠석

옛날에 상동에는 금슬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곱 명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에게 짚신을 삼아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짚신을 삼아주던 할아버지가 그리워 하늘에 대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치성을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지성에 감동한 하늘은 일 년에 한 번 음력 칠월 칠석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늘 구름이 끼게 하였습니다. 헤

어질 때는 아쉬워 눈물을 흘리니 그것이 비가 되어 땅에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도 죽고 아들 일곱 형제도 죽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짚신 모양의 별이 되고 아들 일곱 형제는 북두칠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 ■ 명당자리

옛날 한 사람이 풍수와 함께 묘자리를 봐 놓고 오는데 얼마쯤 산을 내려오다가 한 곳을 보더니 그곳도 아주 좋은 명당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이 좋으나 저곳이 좋으나 하고 서로가 의논하는 중 풍수가 하는 말이 “나중에 봐 놓 묘자리에 생달걀을 묻어 놓으면 며칠만에 달이 될 거야” 하기에 그 자리를 쓰게 되었는데 때마침 길 가던 가난한 집 딸이 그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미리 달걀을 삶아서 그 묘자리에 묻었는데 어느 날 젊은 사람의 아버지가 죽게 되어 미리 보아 둔 묘자리를 파보니 거기서 삶은 계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심상치 않게 여긴 젊은이는 그곳에 아버지를 묻지 않고 다른 곳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딸의 아버지가 죽게 되어 삶은 달걀을 묻었던 묘자리에 아버지를 묻으니 차츰차츰 재산이 불어나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민요

민요란 서민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오랫동안 전래되면서 서민의 생활 감정이 소박하게 담긴 노래로, 흔히 작곡자나 작사가가 분명하지 않고 곡조가 간단한 것이 많으며 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화세상 벗님네야

어화세상 벗님네야  
 부귀공명을 탐내지마라  
 부귀는 티끌과 같고  
 세상공명은 뜬구름이라  
 인생 초로 같든이  
 어이 아니 서러운가

춘향이 노래

쓰리 쓰리 아리리요  
 아리랑 춘향이 볼 사납다  
 이도령 귀지서리 오줌을 썼네  
 썼으면 썼지 적게나 썼나  
 낙동강 칠백리 홍수가 났네

양산도

에헤이요 봄이 왔구나 봄 돌아왔네  
 눈발을 갈고서 에라 씨를 뿌려보자  
 아서라 멈춤과 오고 가지 마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간다

애도가

피 식는 젊음이 눈물이 젖어  
 망망과 서러움에 병든 몸을  
 측후강산 호랑나비 덧없이 가는  
 애닦은 요네가슴 어느 누가 알소나





##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 소사 복숭아의 명성



- 옛날 우리 고장은 수원의 딸기, 안양의 포도와 함께 복숭아 명산지로 유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고장 사람들에게 복숭아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과일로 인기를 얻어 복숭아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수밀도'라고 불린 우리 고장의 복숭아는 알이 굵고 단맛이 뛰어나 보기에 먹음직스러웠으며 수확량도 많았습니다. 복숭아는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운반하기가 어려워 가까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주로 소비되었는데 1970년대 초반까지도 서울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원예협동조합에서 복숭아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고장이 새로

운 공업지역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람들이 늘어나 집을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수원은 없어지고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이 공장으로 가고 땅값도 올라 과수원을 팔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 복숭아는 송내동·심곡동·소사동·괴안동·범박동에서, 포도는 중동·송내동에서 많이 났습니다.

- 중동·상동·약대동·삼정동·오정동·대장동에는 논이 많았으며, 중동신시가지가 되면서 이곳 논밭이 없어지고 오정동·대장동에는 아직 논이 많이 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경기도 농촌진흥원, 잠종장(역곡동), 연초시험장(도당동) 등이 있어 우리 고장은 농사연구를 위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 ■ 부천시립예술단

#### •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88년에 만들어진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임헌정 서울대 교수)는 1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교향악 축제와 서울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 그리고 현대음악 기획연주회 등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필은 복사골 축제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야외음악회, 한 여름밤의 팝스콘서트,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에 참여하여 우리 고장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 주고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필은 중앙무대에서의 활동도 눈부십니다. 교향악 축제를 하여 우리나라 음악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 단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정기연주회와 서거 200주년 기념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국연주회를 발표하였고, 코펠리아와 지젤의 발레 공연, 수 편의 오페라 및 송년 오페라 “박쥐” 등을 훌륭하게 연주하였습니다.

부천필은 현대음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바하와 쇤베르크(90주년)’, ‘베베른 50주기 음악회(95년)’ 등의 현대음악 기획연주회를 하여 음악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제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천필은 새로운 음악,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나라 음악계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오늘도 좋은 연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천시립합창단

1988년에 만들어진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최명철 가톨릭대 교수)은 빠르게 성장하여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최고의 위치를 다져 가고 있어 우리 고장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최명철 교수를 지휘자로 하여 65인의 성악가들, 2인의 피아니스트, 부지휘자 등 70여명의 유명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연주회는 이미 150여회를 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2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는 부천시립합창단은 오페라 합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 전관개관 기념 오페라 공연에서 ‘아이다’, ‘투란도트’를 성공적으로 연주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 행사는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1995년 8월 15일에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대음악회에 참가하여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과 훌륭한 연주를 하였습니다.

합창단의 주요 연주내용은 ▲ 한국 작곡가들의 거의 모든 작품들 ▲ 그레고리오 성가 ▲ 르네상스 시대의 폴리포니모넷트, 미사곡, 마드리갈 등 ▲ 바로크 시대의 칸타타, 오라토리오, 오페라, 미사곡 등 ▲ 고전과 낭만과 시대의 미사곡, 교회 또는 세속 오라토리오 등 ▲ 글루크, 모차르트, 레하르, 마이어베르, 도니젯띠, 롯지니, 베르디, 푸치니, 레온카발로, 구노, 요한 슈트라우스 및 마스카니 등의 오페라 대부분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수많은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 등을 연주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 부천시립 청소년합창단



부천시립 청소년 합창단(상임지휘자·임대영)은 1996년 3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음악계에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지휘자를 중심으로 창단연주회를 비롯하여 팝콘서트, 경기음악제, MBC 청소년음악회 등 여러 연주회에 나가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우리 고장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단체로 떠올랐습니다.

매년 두 차례의 정기연주회 및 기타 여러 연주회에서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부천의 청소년문화를 활짝 꽃피울 미래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80년대 이전을 중심으로

### ◆ 우정·통신

부천지역에 우편업무가 시작된 때는 1905년 소사우편취급소가 문을 열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도시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941년 2월 1일 소사우편국으로 되었으며, 1950년 1월 13일 소사우체국으로 되었다가 1973년 우리 고장이 시로 되어 부천우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898년 1월에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서울~인천간 전화선로가 완성되었으며 그 후 부천전화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 ◆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우리 고장에 있는 초등학교 가운데 부천북초등학교가 1925년 1월 10일 처음으로 개교했습니다. 중학교는 1950년 6월 1일 부천중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졌고, 고등학교는 부천공업고등학교가 1950년 6월 1일 세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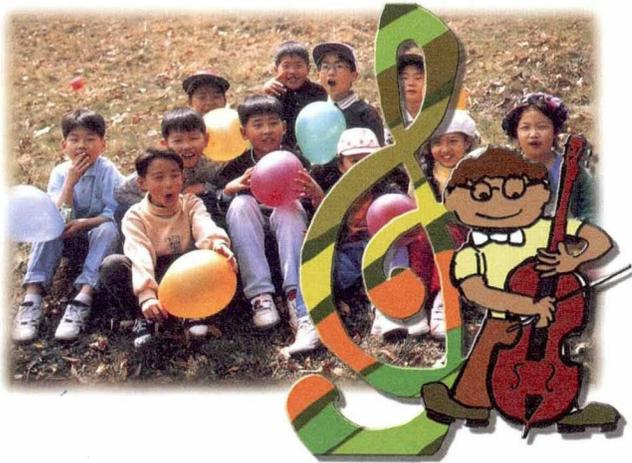
그리고 우리 고장에는 부천대학, 유한대학, 서울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천문화원이 1965년 11월 30일 문을 열어 부천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예총부천지구회라는 이름으로 예술인 등이 모여 창작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1985년 「예총부천지부」가 만들어졌고 그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제1회 복사골종합예술제」가 처음 열려 오늘날 「복사골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3년 어린이 40명으로 구성된 OBS 합주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로 구성된 현악합주단으로서는 우리나라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1969년 2월 1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가 부천에 왔을 때 환영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감사하며 펄벅 여사는 OBS합주단에 감사장을 주면서 “나는 평생 남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적은 있으나 남에게 주기는 처음이다. 여러분의 연주솜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 체육

옛날 인천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마라톤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고장이었습니다. 마라톤 42.195km를 뛰는 많은 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나라를 빛내고, 1970년대 말까지도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 고장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지금은 핸드볼에 부천공고, 탁구에 시온고·내동중, 럭비에 부천북고, 야구에 부천고 등이 우리 고장을 빛내고 있습니다.



◆ 산업

옛날 우리 고장에는 자유시장내에 조그만 상점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그후 부천지하상가 등을 비롯한 여러 시장이 열려 상업이 번창해졌습니다. 그레이스쇼핑과 로얄백화점이 문을 열었고 지금은 뉴코아, LG백화점, 까르푸, 해태쇼핑 부천역사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이 들어섰습니다.

공장은 유일한 선생이 현재의 소사구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자리에 세운 유한양행이 현대식 공장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된 후 우리 고장에는 중앙철공소, 서울주철 등 몇 개의 공장이 세워졌고 그후 많은 많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1970년에는 지금의 부천상공회의소인 소사상공회의소가 세워졌고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공업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74년 삼성전자에 의해 반도체가 처음으로 생산된 곳이 우리 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장의 일반현황(98년 10월말 현재)**

◆ **학교현황**

구 분 \ 학교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교
학교수	95	46	24	21	4
학급수	3,246	1,808	762	676	
학생수	170,867	79,754	36,900	35,176	19,037

◆ **공공 도서관**

구 분	이용시간		보유장서(권)	이용자 (일일평균:명)
	일반열람실	자료열람실		
계	07:00~22:00	09:00~17:00	146,000	2,141
중앙도서관	"	"	88,091	1,129
심곡도서관	"	"	57,909	1,012

◆ **주택현황**

(단위: 동)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52,273	23,269	82,835	11,317	5,300

◆ **주택보급률**

연도	구분	인구수 (명)	가구수 (호)	주택수 (호)	보급률 (%)	비 고
'93		720,140	204,829	114,701	55.90	* 보급률산식 : 주택수 ÷ 가구수 × 100 * 주택보급률증가요인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실제 가구수로 산정하여 증가
'94		753,219	236,802	131,618	55.60	
'95		776,915	246,604	149,500	60.60	
'96		792,859	253,087	150,327	59.39	
'97		787,744	204,727	152,273	74.38	

◆ **시립예술단 현황**

예술단명	창립일	단원수(정원/현원)	상임지휘자	활동상황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8.4.6	90/70	임헌정 (서울대학교수)	연 9회
부천시립합창단	'88.2.20	70/66	최병철 (가톨릭대학교수)	연 8회
부천청소년합창단	'96.6.7	65/53	임대영 (한양대강사)	연 3회

◆ '99 지방세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목별	'98목표액 (A)	'99목표액 (B)	증감액 (B-A)	증감비율 (%)
계	255,691	197,289	▽ 58,402	▽ 22.8
도세	123,062	74,900	▽ 48,162	▽ 39.1
시세	132,629	122,389	▽ 10,240	▽ 7.7

◆ 산업·기업체 현황

(단위 : 업체)

구 분	계	원마구	소사구	오정구
계	44,882 (100%)	21,516 (100%)	11,957 (100%)	11,409 (100%)
농업, 수렵업, 임업	1 (0.002%)	1 (0.005%)	-	-
광업	1 (0.002%)	-	1 (0.008%)	-
제조업	9,059 (20.18%)	4,078 (18.95%)	2,052 (17.16%)	2,929 (25.6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 (0.022%)	2 (0.009%)	4 (0.03%)	4 (0.04%)
건설업	850 (1.89%)	427 (19.85%)	216 (1.81%)	207 (1.81%)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3,303 (29.64%)	6,146 (28.56%)	3,858 (32.27%)	3,299 (28.92%)
숙박 및 음식점업	7,955 (17.72%)	4,113 (19.12%)	2,087 (17.45%)	1,755 (15.3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709 (6.04%)	1,353 (6.29%)	640 (5.35%)	716 (6.28%)
금융 및 보험업	521 (1.16%)	377 (1.75%)	95 (0.79%)	49 (0.43%)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465 (5.49%)	1,267 (5.89%)	659 (5.51%)	539 (4.7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08 (0.24%)	58 (0.27%)	28 (0.23%)	22 (0.19%)
교육서비스업	1,790 (3.99%)	837 (3.89%)	527 (4.41%)	426 (3.73%)
보건 및 사회복지업	861 (1.92%)	376 (1.75%)	272 (2.27%)	213 (1.87%)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5,249 (11.70%)	2,481 (11.53%)	1,518 (12.70%)	1,250 (10.96%)

◆ 차량등록대수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63,558대(100%)	121,213(74.1%)	13,356(8.2%)	28,850(17.6%)	139(0.1%)

◆ 쓰레기 발생량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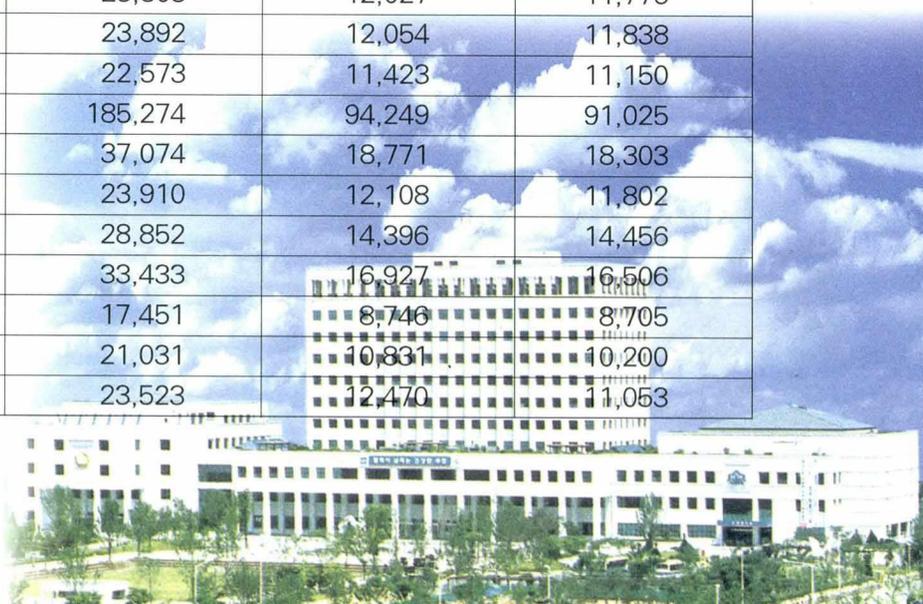
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재활용품
연간	1일평균	1인1일	연간	1일평균	1인1일	연간	1일평균	1인1일	
289,929	79,432	1.008kg	195,611	536	0.68kg	94,318	258	0.33kg	32.53%

◆ 부천시와 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

도시별	도시개황			자매도시 체결일자
미국 텍사스주 파사데나시	인구	11만9천명		자매도시 (‘94.10.25)
	면적	130.8 km <sup>2</sup>		
	기온	평균 22℃		
	지역 특성	미국 남서부 해안 항구도시, NASA가 소재하며, 석유화학 공업발달		
파푸아뉴기니 (PNG) 포트몰스비시	인구	20만6천명		자매도시 (‘95.2.28)
	면적	225 km <sup>2</sup>		
	기온	평균 26.8℃		
	지역 특성	PNG의 수도로 정치·경제·교통의 중심지이며, 천연자 원과 산림이 풍부한 열대지역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인구	5백50만명		자매도시 (‘95.11.28)
	면적	225 km <sup>2</sup>		
	기온	평균 5.4℃		
	지역 특성	중국 흑룡강성의 성도로 석유 등 천연자원과 산림이 풍부 한 경제·문화의 중심도시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인구	1백20만명		우호도시 (‘96.10.21)
	면적	142.77 km <sup>2</sup>		
	기온	평균 15.8℃		
	지역 특성	동경과 요코하마 사이에 위치하며 정보의 중추도시이며 환 경·정보공개·사회교육 등의 면에서 선진적 자치도시		
중국 산둥성 영성시	인구	76만명		경제 우호도시 (‘97.7.25)
	면적	1,563 km <sup>2</sup>		
	기온	평균 11.4℃		
	지역 특성	중국 산둥성 최동단에 위치,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 치하며 수산업이 발달		

◆ 우리 고장의 인구 및 세대

구별	동 별	세대수	인 구 수		
			계	남	여
총 계		253,003	780,017	394,559	385,458
원미구	소 계	125,759	389,633	196,877	192,756
	심곡 1 동	5,022	14,26	5 7,246	7,019
	심곡 2 동	5,483	14,200	7,125	7,075
	심곡 3 동	5,446	15,907	8,082	7,825
	원미 1 동	6,506	19,402	10,065	9,337
	원미 2 동	5,192	15,444	7,846	7,598
	소사 동	4,095	11,728	5,871	5,857
	역곡 1 동	5,560	16,975	8,568	8,407
	역곡 2 동	5,841	17,202	8,643	8,559
	춘 의 동	6,014	17,976	9,136	8,840
	도 당 동	8,916	26,394	13,772	12,622
	약 대 동	5,664	17,290	8,991	8,299
	중 동	9,555	28,357	14,321	14,036
	중 1 동	10,177	35,004	17,520	17,484
	중 2 동	8,188	28,533	14,183	14,350
	중 3 동	8,544	28,224	14,114	14,110
	중 4 동	8,388	27,220	13,463	13,757
	상 동	7,492	23,097	11,533	11,564
	상 1 동	9,681	32,415	16,398	16,017
	소사구	소 계	66,845	205,110	103,433
심곡본1동		7,263	20,843	10,509	10,334
심곡본동		7,329	21,076	10,519	10,557
소사본1동		5,584	17,209	8,797	8,412
소사본2동		3,553	10,333	5,300	5,033
소사본3동		9,485	31,408	15,826	15,582
범 박 동		3,033	8,438	4,280	4,158
괴 안 동		7,831	25,535	12,698	12,837
역곡 3 동		8,016	23,803	12,027	11,776
송내 1 동		7,418	23,892	12,054	11,838
송내 2 동		7,333	22,573	11,423	11,150
오정구	소 계	60,399	185,274	94,249	91,025
	성 곡 동	11,998	37,074	18,771	18,303
	원종 1 동	7,567	23,910	12,108	11,802
	원종 2 동	9,121	28,852	14,396	14,456
	고강본동	11,057	33,433	16,927	16,506
	고강 1 동	5,705	17,451	8,746	8,705
	오 정 동	6,852	21,031	10,831	10,200
	신 흥 동	8,099	23,523	12,470	11,053





## 살기좋은 복사골 부천



### ♣ 상동의 땅 개발

서민 주택건설에 필요한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해 상동의 땅을 개발합니다. 이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은 5만 2천여명이며, 가구는 1만 7천여호입니다.

상동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물론 ▲ 근린생활시설 ▲ 상업업무시설 ▲ 학교 ▲ 공원 ▲ 광장 ▲ 유원지 ▲ 체육시설 ▲ 종교시설 ▲ 종합의료시설 ▲ 사회복지시설 ▲ 도서관 ▲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 ♣ 도시철도 3호선, 종합터미널, 도로 건설

- 인천 도시철도 3호선과 연결, 앞으로 부천구간을 건설하여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고, 버스를 가장 편한 교통수단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 여객종합터미널을 상동 땅에 건설하여 전국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 오정대로와 신흥로를 개설하고 약대로, 옥산로를 만들며 사람중심의 도로를 만들어 나갑니다.

### ♣ 복지시설



▲ 꽃꽂이 교실



▲ 서예 교실

####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 653-6131~2

엠마오의 집, 청소년봉사단 동아리 활동, 배움터, 제빵공동체 사업, 파랑새 나누미, 가족상담사업, 직업훈련 위탁교육, 청소년 여름·겨울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삼정복지회관 ☎ 323-3162~3

인터넷 <http://samjong.welfare.net>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한지공예, 메이크업, 미용교실, 기능교실, 취미교실, 문화사업, 특히 실직자를 위한 실로암센터와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엘림어린이집은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에어로빅, 태권도, 검도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덕유사회복지관 ☎ 325-2161

사랑의 쌀 나누기, 밀반찬 나눠주기,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위한 생일잔치, 아동견학, 무료 단소교실, 무료 노인 한글교실, 청소년 동아리, 장애아동의 사회성을 지도하는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가정을 위한 밝은 미래 알림터,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 청소년 학비지원, 실업강좌, 생활보호대상 고용창출을 위한 호떡, 풀빵 기기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라종합사회복지관** (☎ 324-0723)

이동사회복지관, 장애인 공동작업장, 사랑실천운동, 아동학대 상담센터, 무료 단기적응 훈련, 학교 사회사업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인 종합복지관** (☎ 675-9901)

이곳에서는 장애를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사회재활을 위해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동사회복지관** (☎ 652-0420, 인터넷 <http://sangdong.welfare.net>)

‘복지인 마을’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실직자지원센터, 컴퓨터기능,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로 각종 정보사이트 링크와 부천지역의 구인정보, 각종 신문 기사, 온라인 상담, 인터넷 구인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 목욕권, 도시락, 밀반찬, 승차권, 명절음식 등의 지원은 물론 가사서비스, 학업지도, 행정업무 지원, 차량봉사, 김장김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천종합사회복지관** (☎ 349-3100~2)

홀로 사는 노인분들과 전화상담 자원봉사 프로그램, 김장 지원사업, IMF비상대책실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복지관에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실직자 구직상담을 비롯하여 노숙자 중식제공, 실직가정 아동 방과후 보호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핫라인 상담 전화 ☎ 347-3101을 이용하면 보다 전문적인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맑은 숲**

♣ **상·하수도 건설**

노후 급수관 교체,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굴포천 하수처리시설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줄이기, 깨끗한 고장 만들기**

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평균 쓰레기 양은 대략 1kg입니다. 이 가운데 재활용품은 0.33kg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3%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문화식단을 정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가정에서도 먹을 양만큼 조리하고,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생활쓰레기도 줄여 나가 깨끗한 고장을 만들어 갑니다.

시는 내집앞 도로 주문 청소제를 운영, 아름다운 도시, 깨끗한 고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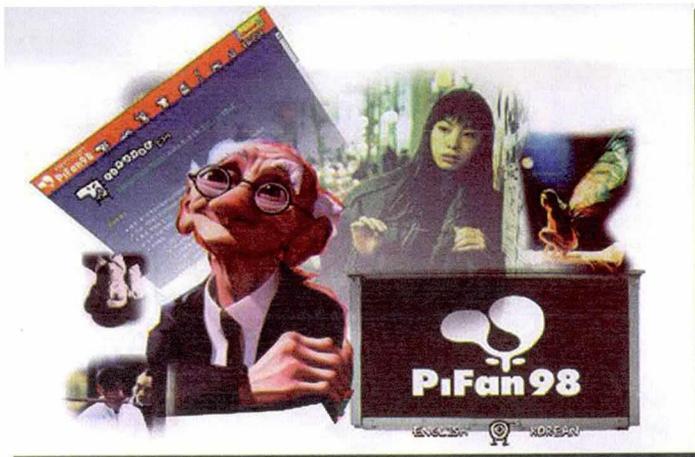
### ♣️ 쌈지공원 조성

주택가에 인접한 자투리 땅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내 만성적인 녹지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근린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쌈지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을 조사하여 예산을 투입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30평이하의 경우 의자, 평상 등을 설치하고 30평 이상은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 ♣️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PiFan97·98)

사랑과 환상, 모험의 축제인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가 '97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영화의 새로운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흠뻑 빠져들 수 있는 미지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말로만 듣던 감독들을 만날 수 있고, 환상 속에서 접하던 배우들을 현실에서 대할 수 있습니다.

PiFan은 빛의 영화제입니다. 미지의 감독, 내일의 스타가 내는 빛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역사의 뒤안에 가려진 우리 영화의 빛에 조명을 비추어 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영화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가 될 이들이 바로 PiFan의 주인공입니다. PiFan은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입니다.

PiFan은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세계각국의 영화 1백여편을 ▲ 부천초이스 ▲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 판타스틱 한국영화 특별전 ▲ 한국영화회고전 등 다섯분야의 섹션으로 나눠 상영됩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 사무국 ☎ 3456-313~4

### ♣️ 만화산업

만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 만화산업주식회사 설립 ▲ 만화정보센터 설립 ▲ 만화교육기관 유치 ▲ 특수영상기술 육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산업주식회사에서는 스토리를 구성하고 등장 인물 캐릭터를 디자인한 다음 만화를 그려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드는 출판만화 사업을 합니다. 또한 출판만화를 통해 독자들의 호응을 받는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에 등





장한 캐릭터가 알려지게 되고, 이 캐릭터를 곧바로 문구, 팬시 등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캐릭터 창출사업을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사이버 만화대학도 운영합니다.

만화정보센터 -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옛날 근화제약 건물내에 만화정보센터를 꾸밉니다. 이 센터에는 만화정보관 · 상설전시관 · 영상자료실 · 교육장 · 창작지원실 등을 배치합니다. 만화와 관련된 전문서적, 국내외 걸작만화, 희귀자료 등을 수집 · 비치하여 역사관, 박물관 성격의 전시공간을 꾸미고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합니다. 만화인들이 모여 토론하고 싸인회, 발표회 등을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합니다.

만화교육기관 유치 - 만화예술고등학교와 일본 애니메이션 스쿨 유치, 그리고 관내 대학내 만화학과 신설로 사이버

만화대학 설립 등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 영상기술 육성 - 출판만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만화영화 즉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술이 수작업에서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래픽 합성기술로 표현되는 '특수영상기술'에의 접근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들이 부천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영상기술 작업센터의 설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화사업팀 ☎ 320-2688

♣ 부천 국제대학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만화산업을 우리 고장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는 부천 국제대학애니메이션 페스티벌 PISAF(Puchon International Student Animation Festival)를 '99년 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 관련학과가 있는 22개대학 재학, 졸업생과 교수, 관련업계 종사자, 매니아 등 약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페스티벌이 매년 개최될 경우 우리 고장은 만화산업의 중심도시가 됨은 물론 국제영화제와 함께 국내외에 유명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것입니다.

부천 국제대학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 애니메이션 상영전 ▲ 전시회 ▲ 공동워크샵 및 세미나 ▲ 창작품제작 발표회 등의 풍성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즐겁게 해 드릴 것입니다.

만화사업팀 ☎ 320-2688

♣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조성

시는 오정구 고강동 청룡산 일대의 청동기시대 유적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나 역사적인 유물, 유적이 별로 없어 전통적인 이미지를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강동 선사유적이 발견된 후 '96~'99년까지 1, 2, 3차 발굴을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발굴팀은 이 곳이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하고 뜻깊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발굴된 것을 보면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돌덧널무덤, 토기, 돌화살촉, 반달돌칼 등이 있으며, 앞으로 출토된 유물과 마을 주거지 보존, 복원계획을 세워 2003년까지 공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 복사골에서 꿈을 가꾸는 어린이들



**우리** 고장 청룡산에는 선사시대 유물이 발굴되고 있어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산세와 지형이 뛰어난 우리 고장에는 중요무형문화재와 향토유적이 있고, 그동안 훌륭한 사람들이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복사골은 도시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분홍빛 복숭아꽃으로 물들어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었습니다. 지금은 복사골예술제와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시립합창단 등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장은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복사골에서 웅장한 꿈을 키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우리 고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2000년대 부천의 미래상**



■ 기본현황(1998년 현재)
* 면적 : 53.46km <sup>2</sup>
* 인구 : 78만명
* 가구 : 25만가구
* 주택(보급률) : 15만8천동(60.8%)
* 병·의원 : 547개소
* 학교 : 95개교
* 자동차 : 16만3천대
* 전화가입자수 : 32만7천회선
* 수도물 1일 공급량 : 31만7천톤
* 도시가스 보급률 : 62%
* 도로율 : 26.8%
* 자전거도로연장 : 66.8km
* 공원시설률 : 49.2%
* 시내버스 : 436대
* 복지시설 : 17개소

■ 2000년대 부천시
* 인구 : 79만6천명
* 가구 : 26만3천가구
* 주택(보급률) : 18만6천동(70.7%)
* 병·의원 : 560개소
* 학교 : 96개소
* 자동차 : 18만대
* 전화가입자수 : 38만7천회선
* 수도물 1일 공급량 : 34만톤
* 도시가스 보급률 : 70%
* 도로율 : 28.5%
* 자전거도로연장 : 101.8km
* 공원시설률 : 60.3%
* 시내버스 : 450대
* 복지시설 : 19개소

 시민의 노래

작사 부천시민의노래 제정위원회  
작곡 이 동 순

행진빠르기  
♩ = 120



성 주 산 기 습 따 라 복 사 꽃 피 고  
힘 차 계 들 리 는 건 설 의 고 동  
앞 에 는 부 천 번 아 님 한 터 진  
알 차 계 꾸 머 가 는 약 진 의 기 상  
드 높 이 휘 날 리 자 애 향 의 깃 발  
힘 모 아 일 하 - 고 즐 겁 게 사 는  
맘 흘 리 는 일 터 마 다 서 광 념 치 네  
행 복 이 샘 솟 는 부 천 이 라 네  
후 럽 뜻 모 아 자 손 만 대 번 영 누 릴 곳  
살 기 좋 은 나 원 으 로 가 꾸 어 가 세

 시민현장

나는 명예로운 부천시민임을 자랑스러 여기며,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더 잘사는 고장, 명랑한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이 현장을 마음에 새겨 몸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검소하게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 되자.
2. 예절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자.
3.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이 되자.
4. 내 고장을 가꾸고 애국하는 시민이 되자.



시민현장탑 : 시청 앞